

멜신에 처음 온 2003년의 가족사진..
 지난 24년간 선교사로 다니며 멜신에서
 가장 오래 살았네요. .아이들은 벌써 대
 학졸업반이 되었고요.



MOON'S NEWS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립하
 는 토착교회로 가는 길이 멀게만...

편지를 쓰려다 아픔이 밀려와 숨을 크게 내쉽니다. 지난번 기
 도편지를 보니 힘이 빠지는듯 합니다. 4명의 현지 리더를 세우
 는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립하는 토착교회로 가는 길
 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현지인 중심의 토착교회를 세우는 일
 에 매사에 고민하며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터키 교회가 세워
 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의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했
 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사역지에서
 늘상 있는 일이지만 막상 저희들이 경험하니 지나온 세월이
 회상되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은 2015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최근 6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습
 니다. 가끔 CA형제의 이해 부족에 부딪칠 때면 왜 4명의 공동
 리더십이 지금 멜신교회에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각은 4명이 공동 리더십 속에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이 과정중에 최소한 한 명은 온전한 리더십으로 서게 될 것이
 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 10일전 CA형제가 시
 험에 들어 4명중 한명인 B형제가 자격이 없고 남편에게는 심
 한 말을 하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충격적인 태도에 나머지 3명
 과 저희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 혼자 리더십으
 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국 연락처(7월 5일이후)

010 2663 2391

이메일

seungho.moon@gmail.com

언행으로 실망 배신 좌절 허탈 뭐 이런 여러가지 감정들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지도자 임명예배를 모두 취소했고 형제들과 다시금 의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와중에 주일 전날에 CA형제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소식과 험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주일에 새로 방문할 사람들이 있어 여러가지 염려 속에 기도하며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전에 CA형제가 나와 이제 교회에 안나오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고 CA형제의 부인은 울면서 교인들과 헤어졌습니다. 저도 자매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아파 찬양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멜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안에서 든든합니다. 몇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확인한 것은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인간인 우리의 사역이 아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특별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에게 있지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93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공평과 95년에 터키로 이주한 후에 태어난 진평과 함께.찍은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 때에는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나가야했는데 사이프러스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1996년)

이 일로 터키 교회의 영적 현실을 더 절실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신자들은 공동 리더십보다 한 명의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는 현지인보다는 외국사역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또한 본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가진 자립하는 토착교회의 비전이 이주해 온 신자들에게는 희미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토착교회를 세우기 위해 늘 고민하며 사역을 하였는데 이제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무산되어 낙심이 됩니다. 토착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터키교회가 자립하는 토착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 믿습니다.

6월 한 달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동안은 지나온 교회 사진속에 CA형제의 가족들로 보기가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을 부르며 이 상황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라 겸손이 받아들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7월4일 이곳을 떠나 한국에 일 년의 안식년을 위해 들어갑니다. 일년 후, 멜신교회에 다시 돌아와 토착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수현 씀